

주의 수난 성지주일

기도서 275면 다해)

제1독서 : 이사 50, 4 - 7  
제2독서 : 필립 2, 6 - 11  
복 음 : 루가 22, 14, 23

# 숨 정 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  
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루가 22, 19).

## 강론

## 소리

### “양 면 성”

양 경배 신부님

오늘 주의 수난 성지주일의 전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념합니다.

미사 전의 첫 부분은 나누기지를 축성하는 예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며 기념하고 있으며, 미사 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수난기를 읽으면서 사람들로 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가지 전례를 통하여 연상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과 수치, 승리와 실패, 환영과 배척, 나누기지와 십자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생명과 죽음, 왕과 죄인”

여기에서 문제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엄청난 인류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공존하는 양면성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 환영과 기쁨의 분위기에서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 반면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에서는 자기의 옳은 뜻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며 슬금슬금 발뺌을 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배신과 거부의 합성으로 광란하던 그 사람들 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는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인 우리,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라고 배반하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인 우리.

위에서 살펴본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고 미워하기 보다는 “그 분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요한 사도의 말에 힘입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나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그분께 대한 신뢰와 사랑과 확신은 점점 커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 “집없는 서러움 언제나 면할까?”

가난한 사람들의 짐장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천정 모르고 뛰어오르기만하는 물가를 앞장서 부채질하고 있는 땅값, 집값은 서민들의 살림을 웅색하다 못해 우그러 뜨려놓고 있다. 서민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겠다해서 행정기관이 토지개발공사와 합작,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비, 공공용지확보 등으로 감보율을 몽땅 적용, 사실상 택지를 마련해 보려는 서민들에게겐 그림의 떡이 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구획정리지구에서 몇백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구획정리사업시행기관에 일단 땅을 넘기고 받은 땅값으로는 사업이 끝난후 뛰어오른 땅값 때문에 집터조차 마련하지 못하므로 집지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나팔을 불어대는 아파트 건립도 서민에게엔 오!지 못할 나무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全州시내에 화재가 되고 있는 현대아파트분양 소동도 그렇다. 1백40세대 청약에 8천명의 크고 작은 손이 몰려 54대1의 경쟁을 보였고 청약예약금으로 쏠린 돈도 2백50억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집이 정말 없어서 청약을 원했던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듣기로는 전주서민뿐 아니고 서울과 인근 대도시에서도 술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이다.

왜들 그럴까. 국가의 정책 잘못된가,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시위인가. 주택건설업자의 농간인가.

집없는 서민이 마음 놓고 아파트 한칸, 집 한채 가질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답답하기만 하다.

### 숨정이 산책



빠짐없이

— 치명자산 봉헌서 — 지금 어디에 있는가!

책은 생선 토막처럼 버려졌던 내 삶이 생기를 되찾고 기뻐할 수 있음은 오로지 나자렛 예수께 대한 신앙 때문이다. 이 귀한 신앙이 어쩌다 나 같은 팔삭동에게까지 굴러 들어왔던가!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 고장만 보더라도 이곳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 까지는 유 항검(아우구스티노) 일가의 몰락, 숲정이, 남문 밖, 여산 숲정이, 백지사터, 서천교, 초록바위 등에 술하게 뿌려진 피의 밀거름을 필요로 했다. 이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앙을 이어준 신앙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기 위한 '성지 개발'과 '시복 시성'이라는 힘든 작업을 시작 한 것이다. '이젠 우리 차례이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겠는가? 이 고장에 살아 숨쉬는 우리, 바로 전주교구 십만 교우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한 사람도 예외없이 동참해야 한다. 교구는 물론 본당, 단체 개인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다.

우선 각 가정으로 배부된 영적 물적 봉헌서를 작성, 하루속히 보내 주기 바란다. 사순절 동안 단식과 금욕 절제의 생활로 얻어진 재물이 '누갈다 성당'(가칭) 재단이 되고 기둥이 되고, 감실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이 성전은 꼭 지어진다. 그리고 전주교구 신자라면 일생 한번은 들릴 것이다. 그때 당신의 정성이 재단의 기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치명산의 우렁찬 남포소리.....

이는 우리의 관심을 재촉하는 소리이다. 지금쯤 어느 구석인가 처박혀 있을지도 모를 '봉헌서'를 찾아 봉헌하고 나서 부활을 맞자.

치명자산 봉헌서내역 1988. 9~1989. 3. 13일까지  
 봉헌서 총액 : 39, 301, 350원  
 김추기경님 봉헌 : 50, 000, 000원  
 독일마인쓰 교구 : 18, 000, 000원 로마교황청 : 36, 224, 000원  
 현 봉헌액 총액 : 27, 552, 535원



성서와 함께

41. 구약성서의 문학유형(B) : 고대 근동의 신화와 이스라엘의 신앙

가나안의 신화중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서 바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일화를 들 수 있다. 바알이 가뭄과 사막과 죽음의 신 모트와 싸우다 패배하여 반죽음 상태로 지하 세계로 운반되자 많은 신들이 슬피 통곡한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시들어 버린다. 이것은 극소의 강우량에 매마른 대지가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모든 초목과 더불어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팔레스티나의 여름을 상징한다. 이 때 바알의 애인 아낫이 그녀의 짝을 찾아 나신다. 아낫은 모트와 결전을 벌이고 그를 삼으로 내리쳐 죽임으로써 바알의 원수를 갚는다. 모트가 죽자 바알이 지하 세계에서 부활하여 아낫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결혼예식을 거행한다. 그러자 자연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대지에 봄이 돌아온다. 이 신화는 명백하게 계절의 주기에 연결된다.

히브리인들은 이 신화를 알고 있었지만, 야훼 하느님께 대한 자신들의 유일신 사상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이런 종류의 신화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만물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신들처럼 역사 안에 등장하는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처럼 원시적 신앙에서 벗어나 발전된 신학을 지니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믿음과 신학을 개진할

때에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였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끝임없이 종속문이 매우 드물고 주로 "그리고"와 "또한" 등으로 이어지는 동등 복합문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상을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데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때 이야기의 형태를 취하였고 이 이야기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체에 기원을 둔 것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진 신화나 설화에 그 뿌리가 이어지는 것도 있다.

우리가 구약성서에 신화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에, 이 신화들은 위에서 지적한 일반적 신화의 특징들과 거리가 먼, 특별한 의미에서의 신화를 말한다. 곧 구약성서의 신화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서의 저자들에 의해 히브리 신학을 표현하기 위한 이야기들로 완전히 변형된다. 창세기 1-11장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다.

한 마디로 구약성서의 신화들은 이야기 형태를 취한 히브리 신앙의 표현들이다. 따라서 신앙이 진실한 만큼 성서의 신화도 진실하다. 이 때 신화의 진실성은 역사적 사실 여부에 따라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비유를 두고 그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다.

서범석한의원

원장 서범석 (출배)  
 일요일 오전은 휴진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진부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85, 75-3533

교 사 초 빙

○과 목 : 생 물 과  
 ○재출서류 : 이력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대학로 전학년 성적증명서 호적등본, 자격증사본  
 ○재출기한 : 1989년 3월 22일 오후 5시  
 ○재출장소 : 전주성삼이고 시부과  
 학교법인 해성학원 이사장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인테리어 커튼 · 암막  
 카피트 · 무대막 · 암막  
 롯데 커튼

성 창호 (대리인드레아)  
 전주시 중앙동(관동로) 객사옆(으뜸)  
 ☎ 86-4884

잡 관 /

“한 주간(週間) 남았네요!”

포근히 찾아오는 봄기운과 함께 부활이 다가온다. 사순절의 고행도 이제 한 주일 남았다. 40일 동안 2번의 단식과 9번의 금육을 고행이라고 얘기 하기엔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것조차 얼렁뚱땅 넘겨 버린 교우들도 있으리라. 이제 한 주일 남았다. 비록 그 동안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지내온 사순시기였지만 이번 한주간 만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부활 맞이에 성의를 다 하자. 이 마지막 주간마저도 정신없이 지나쳐 버린다면, ‘부활’이란 그저 맥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일 간의 침통하고 우울한 성가소리가 갑자기 활기차고 기쁜 음율로 바뀌어 울려 퍼져도 아무런 감각없이 흘려 버릴 것이 뻔하다. 앞으로 남은 한주간- 교회는 이 한주간을 ‘성주간’(聖週間)이라 하고 막바지 목(木), 금(金), 토(土)요일을 성 삼일(聖三日)이라 하여 일년중 가장 거룩한 시기로 제정해 놓았다. 진정 ‘은혜의 시기’인 것이다. 묵은 사람이 새 사람으로, 죽고 썩어 잠초들의 거름이나 되어 버릴 인간이 불멸의 흰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벅찬 감격을 잉태하는 이 시기를 어찌 그냥 보내려 하는가?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세계 모든 성당들마다 부활맞이에 여념이 없을 때다. 우리 분당에 마련된 성주간 전례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자. 그리고 이 한주간 만이라도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 보자. 올 부활만은 그냥 넘기지 말자.

교 구 소 식

1. 한마음 한몸운동 헌혈 : 19일(일) 효자성당 오전10시 송천성당(2차헌혈) 오전10시 26일(일) 숲정이(오전10시)
2. 수도자 성체분배권 교육 : 2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 혼인강좌 : 26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참가비5,000원
4. 성유분배 : 24일(금) 오전10시 사목국
5. 고등부 교사학교 : 4월2일(일) 오전9시30분~오후6시까지 장소-가톨릭센터 대 상-고등부교리교사 회비-1인당3,000원 내용-전체강의 부서별 교육(썰, 쟈, 레 지오)
6. 성체성년 대피점 안내 : 4월8일(토) 오후1시-7시 장소-전주 중앙성당 초청강사-정대식신부(갈멜수도원 원장) 김동준신부, 김발다살 회장님 특송(오순절 봉사회장) 참가비-1,000원
7. 방송안내 : MBC 매주 월요일 오전6시25분「아침을 달린다」 CBS 매주 화요일 오후2시50분「CBS 에세이」 \* 신자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8. 마리아 봉사수녀회 성소자피점 : 89년4월8일(토) 오후7시30분-9일(일) 오후5시 까지 장소-청주시 율량동 192번지 본원 전화(0431) 55-8261 회비3,000원 준 비물-미사도구, 신약성서, 세면도구
9. 동정성모회 성소자모임 : 3. 19(오늘) 오후2시-5시 동정성모회 이리분원(성모의 원내) 연락처-(0653) 2-3783

판공성사는 정한날 빠짐없이 봅시다.  
성삼일 전례에 모두 함께 합시다.

신규직원 채용공고

1. 모집부문 : 일반직 ○명(여)
2. 응모자격 : 1. 1967년 이후 출생자 2. 고졸이상 또는 동등학력소지자
3. 전형방법 : 1. 필기 및 면접
4. 제출서류 : 1. 작필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원 기록부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자서증서본(소지자에 한함)
5. 제출기한 : 1989년 3월 23일 6. 전형일시 : 1989년 3월 25일 10시

삼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9-2444, 3494

28년여 뛰어난 신용기술  
전주현대안경원  
(교우 특별우대)

김 문곤(요셉)  
전주우배국 후부인  
☎ 83-8644-84-3744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 도  
☎ 84-2628

요십이 (815) 김병오



서신동 전주교회  
성전건립을 위한  
바자회·경품권

바자회 : 1989년 4월 6~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  
경품권추첨 : 1989년 4월 9일 일  
오후 5시  
장소 : 전주 중앙성당

수시모집·원장 직책 개인지도  
전주노라노한복  
홍 패션 학원

원장 김 형문 (대려안드레이)  
동부시청앞  
☎ 86-2715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 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렬 엘리 아

관동로 시흥신마을은행  
신니번 관동  
☎ 84-7272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 입니다.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사순절 특강 : 사순절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전동성당에서 있습니다.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사순절특강 : 본당22일 수녀원(울은일에 주리고목마른사람)
  2. 보충판공성사 : 20일 10시-금상리 21일3시-아장리 본당신자들 누락자는 19일 미사전후에 보십시오.
  3. 성주간행사 : 성목요일 8시(주의만찬 및 세족제) 밤샘성체조배-게시판 참조 성금요일 3시-십자가의 길 8시-수난예식 성토요일-부활성야미사 9시 초와부활 제란은 학생회에서 제공합니다.
  4. 20일 오후2시 : 제대회 월례회
  5. 유아세례 : 25일 2시30분
  6. 초등부 사생대회 : 26일 교리-2시
  7. 사순절 저금통 및 성미주머니 헌납 : 23일까지
- ☐ 지난주봉헌금 : 628,300원 ☐ 교무금 : 585,00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인성회 2차헌금 : 오늘(17일) 단식하신 헌금)
  2. 요셉회 : 오늘 저녁미사후 3.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후 4. 불공성사 : 22일 오후7시30분 성사표배부 20-22일 5. 성주간 행사 : 유인물 참조 6. 삼회 : 26일 오후2시 7. 회집단회 : 26일 저녁미사후 8. 영새차 환영식 : 26일 공식미사후 9. 무덤제대 꽃 및 화분봉헌 : 수녀님에게 10. 헌혈 : 다음주 공식미사후
  11. 여사무원 모집 : 제출서류-자필이력서 세례증명서(영세한지 3년이상 편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제출기간-23일
- 금주전례 : 해설-이상인 독서①유두석 ②백준자  
봉헌-유두석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상강 독서①오장수 ②정장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 ☐ 지난주봉헌금 : 496,410원 ☐ 교무금 : 784,95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134 사목회장 유순천

- ※ 주의수난 성지주일 : 주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는 다 되었는지요?
1. 부활안내 : 23일-오후8 : 00-주의만찬미사 24일-십자가의 길, 오후3 : 00, 주의수난예식-오후8 : 00 25일-망부활-오후8 : 00(초준비) 26일-공식 미사 10 : 30 어린이미사 오후3 : 00 축하행사-공식미사후(구역별 점심준비 하세요)
  2. 청년회, 성가정회 : 공식미사후
  3. 판공성사 : 21일 저녁미사후(손님 신부님)
  4. 환자봉성체 : 22일 해당가정은 준비하세요.
  5. 제대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 ☐ 지난주봉헌금 : 270,680원 ☐ 교무금 : 58,0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환웅  
수녀원 84-2276

- ※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냅니다.
1. 회회 : 성모회-오늘 공식미사후에
  2. 알릴 : ①판공성사-21일(화) 21분~27분 및 기타란 아직판공성사를 못보신분은 21일 보시기 바랍니다. ②성삼일 전례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③미사시간-성목요일 오후8시 성금요일 오후3시 부활성야 밤11시 26일(일) 오전10시30분 저녁7시 ④24일 성금요일은 단식과 금육의 날입니다.
  3. 행사 : ①아치에스행사-22일(수) 오후1시30분 ②영세식-25일(토) 오후3시 환영식은 26일(일) 공식미사후에
- ☐ 지난주봉헌금 : 388,680원 ☐ 교무금 : 391,000원

## \*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점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활희상

1. 돼지저금통을 살펴주세요.
2. 여자복사단(한부서만 할 수 있음) 중교교리교사, 주일학교 교사 모집
3. 25일 어린이 미사중 유아세례 있음. 대상-1세~7세 신청바람 (사무실)

4. 예비자 교리 : 오늘부터 시작 오전9시
  5. 교역에 부속할 사진 제출요망
  6. 재단 카페트 성금 접수(약100만원 소요)
  7. 23일(목) : 철야 성체조배
- ☐ 지난주봉헌금 : 292,890원 ☐ 교무금 : 565,930원  
☐ 특별헌금 : 940,000원

## \* 전동

사무실 84-3222 ·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수환  
유치원 84-8317 ·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선  
사제관 82-6232 · 82-7245 사목회장 안득

- ☆ 성전 보수헌금 바랍니다. ☆ 89년 교무금 신입바람. ☆ '축' 영사자(70명) ☆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로 2차헌금 있습니다.
1. 사목회 : 오늘 저녁8시 2. 구역장-반장회의 : 20일(월) 오전11시
  3. 춘계판공성사 : 20일(월) 저녁미사후(하루만, 사제 10분 합동교배사) 4. 성목요일(민찬미사) : 23일(목) 저녁7시, 미사후 철야 성체조배(구역만발로) 5. 성금요일(십자가 경배) : 단식 과금육일, 26일(금) 오후3시 6. 부활성야전례(부활초, 성세수축성) : 25일(토) 저녁7시 7. 레지아 전단원 성당참조 : 25일(토) 오후3시
  8. 부활경축배구대회 : 26일 공식미사후 · 참가팀 신청-3월25일까지
  9. 치명자산 9일기도중 : 22일까지 10. 성전봉사회 뺏지전담 : 오늘 식미사후 11. '감사' : 성모회 일일찾기 수익금 성전보수비 헌금 130만원 12. 금주 보수비헌금 총액 : 1,328,100원 현재총액 : 11,989,300원
- ☐ 금주보수비 신일액 : 18,330,000원 ☐ 현재신일총액 : 50,876,00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  
수녀원 87-0229

### ※ 성지주일

1. 신축헌금 신입자 : 유종석20만원 익명 200만원 임관순2만원
  2. 장학회신입자 : 김광원3 신학생후원회신입자-이문자3 조지철
  3. 오늘 : 성모회(공식미사후) Cu회의(후3시) 청년회(후6시)
  4. 영세식 : 25일(토) 후3시 (어린이미사-후2시 성야미사-후시)
  5. 부활대축일 : 26일-사제관 · 수녀원 낙성식 및 체육대회(새벽사 없음)
  6. 주의만찬 : 23일(목)후7시반-철야성체조배 24일(금)후3시-자가의길 후7시반-주의수난예절
  7. 신축헌금과 교무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8. 차주전례 : 해설-박종구 독서①장상근 ②최 춘 봉헌-영세자
- ☐ 지난주봉헌금 : 312,540원 ☐ 교무금 : 314,000원  
☐ 자선헌금 : 21,300원 ☐ 신축금신일총액 : 145,534,836원

##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  
수녀원 84-4804

1. 사순절 성미 · 돼지저금통 봉헌 부활대축일날(26일)
  2. 본당 헌혈의 날 : 오늘(09-15시)
  3. 성주간전례안내 : 성목요일-주의만찬 미사 후7시 미사후-성체조배 성금요일-오후3시 십자가 의 길 오후7시-십자가의 영성체
  4. 부활대축일 미사안내 : 토15시-어린이 부활미사 22시 부활축일 성야미사 일-9시, 11시 오후7시30분
  5. 부활대축일 성가연습 : 매일(어머니, 청년연합)
  6. 영세식 : 26(일) 오후7시미사중에
  7. 고백성사 : 화, 수 미사전후 8. 금주청소담당 : 성당부금 차주 효동마을
- ☐ 지난주봉헌금 : 809,900원(1,027명) ☐ 교무금 : 686,000원  
☐ 중고생헌금 : 38,650원(137명) ☐ 국교생헌금 : 12,600원(228)

##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  
수녀원 87-0711

- ※ 축 영세 : 31명
1. 단식권고 헌금의 날
  2. 성삼일전례 안내 : ①주의만찬미사-목요일 저녁8시(불우어 돕기 헌금) ②주의수난일-금요일 오후3시 십자가의길 저녁: 수난예절(단식과 금육) ③부활성야미사-토요일 저녁8시
  3. 청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4. 사목회월례회 : 저녁미사후 반회집월례회 : 28일 오전10시 6. 병자성사 22일에 있습니다. 부활준비 대침소 : 22일(수) 오전10시 8. 부활판공성사 : 2(화) 20 : 00 무궁화, 융성
- 금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납상용 ②최윤희  
기도-선종운 박경이  
차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정상수 ②조숙애  
기도-이종권 백숙명
- ☐ 지난주봉헌금 : 413,520원 ☐ 교무금 : 520,000원